



BUS992 Advanced ESG Management Case Study
(Doctor)

제 8 주차 리포트
Essay Report

과 목 : ESG 경영사례연구
교수명: 김 영 기 교수님
코 드 :
과 정 : 박사과정 3학기
학생명: 김 경 민

[ESG 경영 국내외 동향]

1. ESG 주요 동향

1-1) ESG 관련 국내외 동향

ESG 이슈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적 규제강화와 투자(공적투자, 민간투자)기관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, 기업들이 대응 노력도 확대.

▶ 제도적: 06년 UN PRI의 지속가능한 관련 6대 원칙이 발표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화,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율 강화 추세

▶ 투자: 글로벌 연기금 기관들의 ESG를 내재화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고,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등 민간 투자 기관들도 ESG를 기업의 미래가치로 인식하면서 기업 ESG 정보 공개 수요가 급증

▶ 민간: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평가가 확대되면서, 평가/컨설팅/자문을 수행하는 평가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, 산업 단위의 협.단체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, 자발적 대응 노력도 확대 되는 추세

구분		주요 동향
제도적 측면		•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,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
투자	연기금	• 글로벌 연기금의 ESG 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가 보편화
	자산운용사	•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이행
	신용평가사	•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,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
민간	평가 기관	• 기업들의 ESG 대응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평가 기관이 급증하여, 특히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
	이니셔티브	• (공공) UN을 중심으로 ESG 분야 원칙, 목표 등을 제시 • (민간) 전자,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산업 특성을 감안한 이니셔티브 조성하여 ESG 적극 대응 * 환경, 책임경영 이니셔티브도 확대 추세

1-2) ESG 규범화 주요 동향

- 2000년대 전후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ESG 공시 등 규제강화 논의가 확대되었음.

- EU :

2003년 회계현대화지침(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/51/EC)에서 연차보고서 상 비재무적 요소(ESG)의 공시를 권고하며, 이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2018년 의무화 함.

> 2014년 EU 집행위원회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(Directive 2014/95/EU) 제정

> EU 내 영국, 독일, 프랑스 등은 기업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*하였고, 최근에는 ESG 요소 중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

- (영국)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(Company Act, 2016), (프랑스, 독일)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보유 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(Code de commerce L&R, 2017,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law, 2017)

- (EU) 산업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('21), (독일)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 도입 발표('21)

- 미국:

미국은 과거부터 기업윤리 및 지배구조 중심의 제정 및 정보공시를 강화해왔으며, 최근에는 환경 및 공급망 관리 등의 법령을 추진하고 있음.

- 일본:

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, 환경에 대한 기업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하였음.

- 중국: 중국은 국영 및 외자기업들의 CSR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추진 중

- 한국: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(상장기업)하고 있으며, ESG 관련 규제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

1-3) 책임투자 등 기관투자자의 ESG 동향(연기금)

- ESG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ESG 투자원칙에 수립되고 ESG 투자를 내재화하는 추세

▶ 책임투자(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, 2018)

▶ ESG 채권(Bloomberg NEF, 2021)

- 글로벌 연기금, 자산운용사 중심의 책임투자가 증가하면서, 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가속화(19개 국가)되고 있고, 국내에서도

총 162개 기관(국민연금 등) **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함.

**** 스튜어드십 코드(Stewardship Code):**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, 수탁자가 어떻게

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

- 글로벌 연기금들은 각각의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책임투자를 실행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평가에 필요한 ESG 정보공개를 요구

1-4)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관련 ESG 동향

- 자산운용사 :

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BlackRock, The Vanguard Group (Vanguard), State Street Corporation(SSBT)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이행.

◎ (BlackRock) 거버넌스 구조, 중장기 ESG 목표, ESG 연계 KPI 설정, 기후 변화 대응체계, 인적자원 관리 이슈에

대한 정보를 통해 적극적 의사 결정 참여 권고

◎ (Vanguard) 재생에너지, 지속가능한 산림, 수자원, 보건, 포용적 금융 등 테마투자를 운용하기 위해 기업의

ESG 정보 활용

- 신용평가 :글로벌 신용평가사(S&P, Moody's, Fitch)에서는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,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추세.

◎ (S&P) ESG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대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1차 평가점수를 산정, 중·장기 지속가능성을 정상적으로 판단한 추가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도출

◎ (Moody's) 2019년 1월,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ESG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 평가에 적용(Moody's ESG & Climate risk website)

◎ (Fitch Ratings) Fitch는 2019년 1월, ESG 통합점수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, 전 세계 1,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자체 평가결과를 공개(ESG Relevance Scores for Corporates Report, 2019)

1-5) ESG 평가기관 동향

-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, 자산운용사,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

-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수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, 평가지표를 매년 최신화하고 있는 추세.

-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
○Apple, BMW, VolksWagen 등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(공급망) ESG 관리가 강화,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련 ESG 평가도 활성화

○국내기업 또한 협력사 대상 ESG 평가 도입 확산 추세

○일부 국내 신용평가사는 중소기업 ESG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 추진

1-6) 공공.민간 ESG 이니셔티브 동향

-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, 개별 이니셔티브는 정보공개 원칙, 지침, 지표, 방법론 등을 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.

● (UNGC) 조직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,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

● (UN SDGs)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, 기업, 시민사회 등이 환경,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도록 17개 분야,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

● 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) Apple, HP, Dell 등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(생산~소비)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하였으며, 최근 이니셔티브 가입 대상을 자동차, 항공, ICT 등의 산업으로 확장

● (Drive Sustainability) BMW, Volvo, Daimler, Toyota 등 완성차 산업의 조달/생산/유통 단계에 잠재된 환경, 사회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완성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,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

- (Plastic Economy, NaturALL Bottle Alliance)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/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진행

- (Renewable Energy 100, Science Based Targets)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, 배출량 관리 방법론을 개발 및 확산하는데 집중

- (GRI Standards, SASB Standards)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(Guidance)과 지표(Indicators)를 제시.

- 산업별, 이슈별 이니셔티브는 조직의 자율적 참여 방식에서 강제적 규약 방식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, ESG 성과를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.

2. 국내 ESG 대응 현황.

2-1) 투자: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현재 규모는 작으나,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- 펀드: 국내 ESG 펀드는 자금유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모 급증

- 채권: '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은 약 549개(상장잔액 82.6조원)로 빠르게 성장(금융위원회, '21.2)

- 연기금 및 금융기관: ESG 평가시스템 구축,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 추진 중

2-2) 기업·단체: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대응

- 기업일반: 주요 대기업 등은 ESG 관련 정책 및 목표를 선언하고, 계열사의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

- 중견·중소기업: 중견·중소기업은 경영부담(인력, 비용)으로 인해 전반적인 ESG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, 최근에는

공급망 ESG 평가 확대로 점차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

- 수출기업: 수출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집중하여 대응 중이나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요구 강화 추세

- 경제단체 등: ESG 위원회 설립, ESG 관련 교육 및 포럼 개최 등 기업의 ESG 대응 지원

2-3) ESG 서비스: 민간 컨설팅·신용평가·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에 참여하면서 ESG 서비스 생태계 조성 중

- 국내 컨설팅 기관 및 신용평가, 언론사 등은 각각 ESG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ESG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 참여